



관광서 실외 환경의 공원화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성장한다. 환경에는 정적환경과 동적 환경이 있는데 동적 환경이 관심을 끌게 한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에는 학교, 관광서인 시·도청 구청 군청 면사무소가 있는데 이들 관광서가 실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서가 지방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며 쉼터로서 구실을 하고 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잘된 조선대학교는 학교의 실외 환경이 공원화되었으며 장미 축제로 주민들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초등학교도 학교 공원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사철 피는 학교 실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적인 실외 환경조성으로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 에너지 변환에 대한 교육자료가 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수창초교의 물레방아는 연못의 수중 생물 원과 어울려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광주북구청(구청장 문인)은 실외공원화 사업이 잘된 구청이며 구청 앞 공원이 규모 있게 어울려 두 채의 정자가 청사 양쪽에 있으며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 동적 환경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으며, 화단조성을 잘하여 봄에는 봄꽃전시회,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사철 꽃피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주민의 쉼터로 찬사를 받는 관광사다.

관광서에 실외공간이 있어도 민선 단체장의 관심이 없으면 풀밭으로 전락해 애물단지 되고 있으며 관광서가 공원화된 관광서와 대조적이다. 한 일이 열 일이라고 관광서의 실외환경이 공원화된 것만 보고도 지방행정이 알차고 실속있게 잘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으며 관광서 공원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관광서와 가까워지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관광서 실외환경조성은 지역 특성과 관광서 위치에 따른 공원화 조성 설계도가 필요하며 화단 조성, 구조물 설치, 정적환경으로 사철 꽃피는 환경조성 설계, 동적인 환경으로서 연못과 물레방아 설치에 대한 구상과 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해 조성해야 한다.

동적 실외 환경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물레방아인데 지역에 따라 흐르는 자연수를 유입해 물레방아가 돌게 하고 에너지 변환을 하는 시설도 할

수 있으며 연못을 만들고 연못의 물을 펌프질해 물레방아가 돌게 할 수 있으며 태양광 전기 설치로 전기는 충당 할 수 있다.

물레방아는 움직이는 환경조성에 이용하고 있는데 다방이나 음식점의 환경조성과 관광서나 학교의 실외 환경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문화전당 앞 민속촌 음식점에도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움직이는 환경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환경은 정적인 환경과 동적인 환경이 있는데 동적인 환경은 살아 움직이는 환경이다. 오늘날 우리 생활은 전기에너지 이용시대인데 그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여 변환되는가에 관심을 두게 하며 그 지역 주민과 학생과 고객이 동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이 창의적이고 정서적이다. 그러므로 환경조성은 창의력을 발휘해 동적인 환경으로 바꿨으면 한다.

필자는 고향 무안군 몽탄면 산소 진입로 가에 고지대에서 흐르는 물을 저지대로 350m까지 파이프로 유입하여 저지대로 흐르게 했으며 거기에서 나온 물로 물레방아를 돌게 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환경에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위치 에너지 변환 이용의 착상에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이 없는 곳에서 물레방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거기에 발생한 전기에너지로 수중 모터를 돌려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물레방아가 돌게 하면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움직이는 환경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필자는 물레방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공장이 담양군 무정면 면사무소 부근에 있음을 알고 답사했다. 하나의 물레방아를 만드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장인이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만든 물레방아를 크기 용도에 따라 정해 사서 설치하면 된다. 에너지 변환의 원리를 알고 학교를 비롯한 관광서의 주변 환경을 움직이는 동적인 환경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칼럼

비상구 개방은 안전한 사회 위한 지름길

김기수 여수소방서 119구조대장

기고



비상구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서 평소에는 닫아 두다가 긴급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을 말하며, 이 곳은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상구란 말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떠한 위기 시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과거 비상구 관련 화재사태를 보면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 2002년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 2007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노래방 화재, 2018년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태를 보면 비상구에 쇠창살 등이나 장애물을 설치 하였거나 비상구 자체를 폐쇄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되었다. 이러한 사태들은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비상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구는 인명이 대피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한다. 비상구는 항상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둔다든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위기시에는 탈출하지 못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볼수 있다.

다중이용시설로서 노래방, 단란주점, 영화관, 숙박시설, 터미널과 같은 시설에는 개방되어야할 비상구나 계단, 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사진촬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아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5천달러로 세계 10위권인 경제력순위와 K-POP과 한류열풍 등으로 인기가 높은 대한민국의 선진 국민으로 더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듣기 싫은 "안전불감증, 인재, 안전수칙 무시, 불법 구조변경"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여 우리모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합시다.

보행자 안전 위한 운전은 이렇게

기고

윤소현 보성경찰서 수사과 순경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0km/h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부과되던 보호의무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를 신설하였고, 특별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통행방법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작년 4월 시행된 '교통안전속도 5030'과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아 우리나라도 교통안전국으로 한걸음 나아가고있는 과도기에 있는듯하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교통안전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기고

다문화사회, 배려와 포용이 필요

이장규 담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주 여성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게 되고, 서로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미처 자세히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더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언어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생산현장의 노동인력 부족과 농어촌지역의 결혼문제 등과 맞물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촌가족들의 증가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일이 흔하며, 농촌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유입됨으로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해 생활 부채증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2010년 기준)로 일반 가정의 53.8%보다 크게 높았다.

군다나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근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이민자에게 한국문화와 생활 속의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시스템 등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는 우리 사회의 이해교육과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한국 배우자 간 상호 문화적 이해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무작정 동정심이나 특별한 대우보다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마음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